

대형마트 진입 장벽 낮춰준 市 조례

건축면적 규정없어… 북구 ‘근린상업지역 3000㎡ 이상 제한 개정안’ 市에 제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오히려 근린상업지역 내 대형 마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은 근린상업지역 내 대형 마트 견제 면적이 제한돼 있는 반면, 시 조례엔 견제 면적이 규정돼 있지 않은 편이다.

광주시 북구는 26일 근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면적 3000㎡(907.5평) 이상의 판매시설 건축 허가 제한을 골자로 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에 제출했다. 국토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상업

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은 연면적 3000㎡ 미만인 것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로 규정되는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도시·군 계획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광주시 조례는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판매시설 건축 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지자체들은 상위규정에서 면적과 사안에 따라 일부 제한·위임한 건축허가 사항을 시 조례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최근 증축·신축 논란을 사고 있는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와 북구 신운동 창고형 할인점 ‘비마켓’ 등 모두 근린상업지역 내에 건축을 추진하고 있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노력에도 영세상인들은 여전히 대형 마트 유입으로 인한 영업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내 대형 마트의 과도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근린상업지역 내에서 3000㎡ 이상 면적의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면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웃가게 등 다른 종류의 시설도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의회에 입찰행정 개선 특위 제안

참여자치 21

참여자치 21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에 입찰행정 제도개선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의 2015년 광

주 하계U대회 다큐작제육관 건립공사 입찰결과에 대해 예산 절감 사례라고 평가하며 건전한 입찰행정 정착을 위해 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다큐작제육관 건립공사의 낙찰률은 75.02%(86억원)였다.

참여자치 21은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단기공사, 일반입찰, 용역입찰, 부실공사를 조사해 새금 낭비를 바로잡고 부실공사 예방과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해 입찰행정 혁신에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분권적 정부 운영체계 구축해야”

광주 경실련 촉구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 경실련)은 26일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광주 경실련은 이날 전국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금 까지의 중앙 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

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자치재원 비율 최소 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복지·경제·임법·재정 포함 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 등을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가 참여하고 공기부양정 등이 동원된 ‘상륙 및 반상륙 훈련’을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민주 시당위원장 놓고 초선의원 신경전

임내현 출마 선언… 박혜자 “합의하자 해 놓고”

차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위원장 자리에 놓고 초선 국회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통합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은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당을 만들겠다”며 광주 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뿌리인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 틈틈이면 중앙당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고 다른 정치세력들까지 자연스럽게 포옹하게 될 것”이라며 “뿌리가 튼튼한 시당을 만들고 아래에서부터의 정치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두 의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위원장을 추대하자고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흘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오는 30일

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의 시당위원장 출마선언에 따라 그동안 시당위원장 출마의 뜻을 밝혀온 박혜자(서구갑) 의원과의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두 의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위원장을 추대하자고 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흘로 출마선언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오는 30일

국정원 직원 추정인물 ‘대선개입 혐의’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여)씨의 ‘대선개입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피의자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수경찰서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한 글을 올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상 국정원 직원이 맞는 것으로 본다”며 “아직 서면이나 소환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소환할 것을 조율해 정확한 신분과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